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이양품(利養品) ①

芭蕉以實死 파초이실사
竹蕩實亦然 죽노실역연
駢馳坐好死 거취좌임사
士以貪自喪 사이탐자상

파초는 열매 맺어서 죽고
대과 갈대의 열매도 그러하며
버새는 새끼를 배면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써 스스로를 죽인다

如是貪無利 여시탐무리
當知從緣生 당지종처생
愚爲此書賣 우위차해현
首領分于地 수령분우지

이와같이 탐욕엔 이익이 없으니
어리석음을 좇아 생기는줄 알라
어리석은 이는 탐욕때문에 어진이
해치다가
쌍을 나눠 받아 물리게 된다

天雨七寶 천우칠보
微猶無厭 유태무염
樂少苦多 낙소고다
覺者爲賢 각자위현

“탐욕엔 이익이 없고 괴로움 많으니
욕심을 버리고 버려 남들을 공양”

하늘에서 칠보의 비가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만족하지 않으니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다
이를 깨달은 이 현자가 된다

雖有天欲 수유천욕
慈捨無貪 혜사무탐
樂難戀愛 나이은애
爲佛弟子 위불제자

비록 하늘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이 이를 버려 탐하지 않아
은애 여의는 걸 즐거워 한다
그는 진정 부처님의 제자

遠道順邪 원도순사
貪養比丘 탐양비구
止有慳意 자유간의
以共彼姓 이공피성
勿捨此養 물의차양

도를 멀리하고 사됨을 따라
이양을 탐하는 비구여
아끼려는 그 생각 버려서
남들을 공양하고
그 이양엔 기대지 말라

爲家捨罪 위가사죄

此非至意 차비지의
用用可益 용용하익
愚愚愚計 우위우계
欲慢用財 욱만용증

집을 위해 죄를 버림은
지루한 뜻이 아니다
애쓰고 애쓰는 무슨 이익 있느냐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괴로
욕심과 교만만 날로 더한다

異哉失利 이재실리
泥水不同 니원부동
諸知是者 체지시자
比丘佛子 비구불자
不樂利養 불락이양
闍居却意 한거각의

이상하다 이익 없음이여
그들은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니
이 이치를 분명히 아는 이
부처님제자 비구라
이양을 즐거워 하지 않고
고요히 살면서 뜻을 물리친다

自得不持 자득불시
不從他望 불종타망

望彼比丘 망피비구
不至正定 부지정정

스스로 얻되 남의 것 믿지말며
남의 소망도 좇지 말라
그런 것 바라는 비구는
바른 선정에 이르지 못한다

夫欲安命 부욕안명
悤心自給 응심자성
不知計數 불지계수
衣服飲食 의복음식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의복이나 음식 따위
수량을 셈하여 알려하지 마라

夫欲安命 부욕안명
悤心自給 응심자성
取得知足 취득지족
守行一法 수행일법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얻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
오로지 도의 길을 지켜나가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눈에 보이는것 집착하니

벽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사월초파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
에 오신 날은 절기로도 만물이 소생해
물오른 때입니다. 꽃들은 갖가지 빛깔로
만발하고 나무들도 생명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포함해서 만
물이 살기좋은 때입니다. 반드시 불자가
아니어도 초파일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의욕을 보이는 기운이 감돈
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들도 보도 못한
MF인가 뭔가 하는 경제한파가 몰아닥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
다. 살림이 퍼지지 않으니 마음들까지 위
축돼서 공백해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는 속상한 일이 많습니
다. 또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업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업연에
의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중생세간이라
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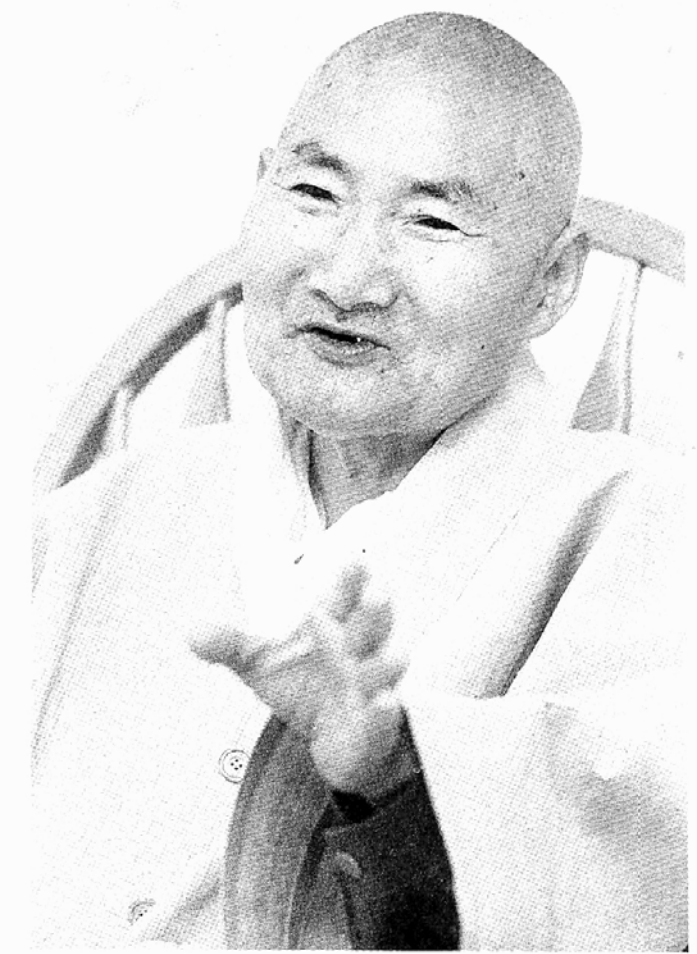
중생세간에는 욕심을 가진 생명, 또 감
각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생명 등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 생명만도 땅 하늘
바다를 포함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
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을 한
데 묶어서 우리 중(衆)자 남 생(生)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
래서 중생세간이구.

그러나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떠난 욕심은 그대
로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다 이겁니다. 물질에 불과
한 욕심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냄새
도 맡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지요. 비로소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런
데 사람들은 생명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
지 못하고 심지어 불교를 좀 안다하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이 어떻
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아무 생각없이
내 몸 속에 있는 나 라는 몸 자체가 생명
이라고 답하거든요. 색(色) 수(受) 상
(想) 행(行) 식(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연에
의해 생멸변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
다. 그러니까 나(我)라는 존재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살이
의 수명이 하루면 하루살이는 그 속에
기간이 하루인 생명이 있을 뿐이라고 믿
는 것입니다. 이 생각대로라면 인간 생명
의 공간을 자로 잰다면 여섯자도 못되고

시간적으로는 60~70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생명이 황변시당이요
수궁삼제라는 말과 같이 옆으로는 시방
에 가득 찼고, 위 아래로는 과거 현재 미
래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정체를 잘못 알고 사니
까 바른 생활이 어렵고 어긋나는 생각이
이어져 나와 그것이 입으로 가면 구업
(口業)이요, 행동으로 나타나면 신업(身
業)이요, 생각으로 가면 의업(意業)이 되
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
장 경계해야 할 신·구·의 3업이 생명
의 본질과 맞지 않아 나오는 셈이지요.
그러다보니 중생의 삶은 공연히 전후사
방의 좁은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간과 공간 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
고 있는 것입니다.

- 1924년 경남 남해 생
45년 일본 관서공업전문대 졸
47년 적음스님 은사로 매명스님
계사로 구축계 수지
49년 서울 호국사 역경원 대교
과 수료
60~66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
부장
68~73년 동국학원 이사장
68~75년 조계종 선학원 원장
및 이사장
72~75년 조계종 중앙총회회장
78년 조계종 중정 직무대행
86년~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현 공주 신원사 조실



“만약 공기가 눈에 보인다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테지요
이처럼 집착이 삶의 큰 장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후 중생세간을
살펴보니 내 몸속에 따로 내가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나라는
분별을 가져 구분을 하고 집착을 하면
탐심과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나라는 집
착을 한다고 해도 생명의 본질은 원융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을 법성(法性)이
라고 하는데 가히 시간적으로 끊을 수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
을 얻으신 부처님은 세상의 과거 미래
현재를 한꺼번에 보셨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그저 이것을 자꾸 나

누고 끊어서 자기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체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법
성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
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병통입니다. 중생들
은 과거에서부터 미(迷)한 상태에 처해
서 앞으로 몇걸 몇천걸 후에까지 운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아집
(我執)이라고 하는데 아집으로 인하여
생사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활이 욕망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통과 번뇌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질 이와 같은 중

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도장
찍어 놓은 것과 같이 보시고 있는 것입
니다. 중생은 저마다 다른 업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공기는 눈
에 보이지는 않으나 공기속에서는 자재
함을 얻지요. 반면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재합니다. 올빼미나 박쥐는 어둠 속에
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공기가 사람의 눈에 보인
다고 생각해 봐요. 또 물고기의 눈에 물
이 보인다고 가정해 보자요. 그러면 분
명히 사람이나 물고기들은 공기와 물에
부딪칠까봐 제대로 숨조차 쉬겠습니까.
행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나
면, 집착을 하면 오온이 개공할 수 없고
따라서 자재하기란 더욱더 불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
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감각이
각자의 업대로 나타났거든. 같은 사람일
지라도 업이 다 다르니 우리가 이 업을

매일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에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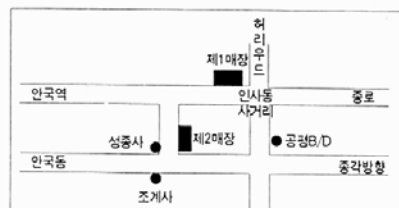


우리옷 “에 맥”의 제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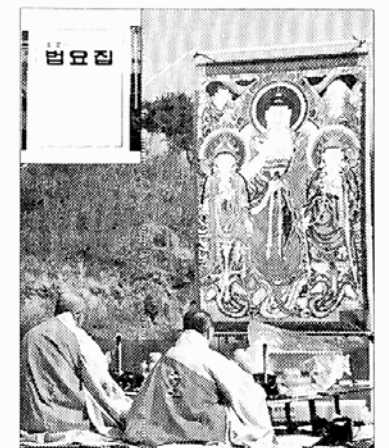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코 제품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각종 연회 예복 제작
스님들의 간편복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분할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에 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 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 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패블



〈패 블〉
● 규 격: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90만원 (패블대 포함)
▶ 패드내용: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암도 큰스님
佛敎布敎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 772-9052, FAX : (02) 755-0479
(02) 672-1333, 723-4599